

미국·일본·유럽의 양돈 현황 (Ⅱ)

맹달호역
(본회 수원지부장)

〈4월호 125쪽에서 계속〉

나. 분뇨처리와 축산공해문제

이 문제는 전항과 관련되어 있고 미국과 같이 광대한 농용지를 갖고 강수량이 적고 증산량이 많은 곳에서는 간단한 라군방식으로 악취도 없고 농지에 100% 살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같은 나라에서도 최근 인디아나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뇨처리에 관련하여 농장의 적정사육두수에 대하여 규제가 시작되었다.

또 화란이나 독일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있어서는 악취대책의 한 방법으로서 연간 특정의 시기에만 농경지에 분뇨살포를 인정하고 있든가 1농지당의 투입량을 제한하던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규모가 큰 양돈장에서는 대규모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폭기를 한 후에 농장에 살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대하여 일본에서는 근년에 분뇨처리에 대하여는 발효건조시켜 농지에 환원하는 방법이 널리 보급되어 왔으나 오줌의 처리에 있어서 완벽한 것이 없고 강수량(우량)이 많은 것과 겹쳐 그 대책에 고심하고 있는 농장이 많다. 살포에 의해 생기는 악취문제는 심각하며 공해에 대한 종류별 건수나 악취에 대한 건수 등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또 오수에 의한 수질의 오염도 문제이고 설사 정화시설을 완비하여 기준치 이하의 수질로서 방류한다고 해도 어업조합이나 수리조합 등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일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양돈장의 신설은 지금은 불가능에

가깝고 연안지대에서는 해수오염, 평지에서는 악취나 수질오탁이, 그리고 산간에 들어가서는 수자원의 오염이 문제로 되어 땅값의 고가와 겹쳐 일본에서는 안심하고 축산경영을 해나갈 토지(장소)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덧붙여서 일본에 있어서 전 가축의 연간 분뇨량을 말하면 연간 8,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노동문제

최근 일본에 있어서는 노동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가족경영이나 회사경영을 가릴 것 없이 젊고 유능한 근로자는 제1차 산업의 분야에서는 구하기 힘들다. 구미 제국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경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양돈장이나

도축장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젊은 남녀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계의 학교 졸업자라도 축산관계의 현장 근무를 좋아하지 않고 있으며 힘과 노동 환경이 좋지 않는 양돈장에서는 금후 더욱 더 이런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노무도산에 이르게 될지 모를 상황이다. 일부 양돈장에서는 외국 노동자를 연수생의 명목으로 불법취업시키고 있는 예도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는 기계화, 생력화를 도모함과 함께 노동 시간의 단축, 고임금 등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와 동시에 인건비나 상각비의 증가를 보충하기 위해 보다 번식 성적의 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되나 실제로 말하기는 쉽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라. 돈육의 수입문제

1989년의 세계 주요나라들에 있어 돈육생산량은 약 6,200만톤으로 이중 수출입량은 약 350만톤 정도로 추정되며 전 생산량의 5%에 지나지 않는다. 주된 수출국은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중국, 캐나다, 구동독, 대만, 미국으로<표5> 수입국으로는 구서독, 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고<표6> 다른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자

급자족의 상태에 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일본보다 농용지면적이 넓은 반면 돼지의 사양두수가 적고 돈육 소비량은 훨씬 많으며 돼지의 국내 생산여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대량의 돈육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다. 영국은 국내 생산량 100만톤에 대해 그 절반이 넘는 52만톤을 수입하고 있고 그것은 전 소비량의 34%에 달한다. 또 이탈리아는 소비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50만톤을, 프랑스 20%의 40만톤을 수입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표7> 소비량의 15~20%에 약 30만톤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축산관계자 중 많은 사람들은 해마다 가격하락의 경향에 있는 돈육의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돈육에 한하지 않고 다른 식육류에 대하여도 자급률을 높인다는 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일본의 축산은 그 근간인 사료를 100%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식량의 안전확보를 구

<표5> 돈육수출량상위 10개국('87)

(지육환산 1000t)

1	네덜란드	915
2	덴마크	822
3	벨기에	320
4	중 국	247
5	캐나다	235
6	구동독	230
7	대 만	155
8	미 국	145
9	루마니아	140
10	구서독	137

(USDA)

<표6> 지육수입량상위 10개국('87)

(지육환산 1000t)

1	구서독	555
2	미 국	533
3	영 국	520
4	이탈리아	466
5	프랑스	420
6	일 본	310
7	소 련	260
8	홍 콩	230
9	스페인	70
10	그리스	60

(USDA)

<표7> 일본의 주요돈육수입선

(부분육환산, t)

구 분	1980	1983	1985	1987	1989 ¹⁾
대 만	16,710	32,860	66,929	132,528	110,823
덴 마 크	29,199	17,676	77,433	92,842	134,357
카 나 다	30,056	41,828	21,944	20,177	30,549
미 국	29,734	35,413	11,906	21,441	49,863
기 타	-	-	8,560	11,498	19,461
합 계	108,187	165,451	207,719	278,486	345,053

1) 예측

실로 국내자급을 제창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측과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나름대로의 대응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사료원료에 대하여도 해당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급률 향상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그리 심각하게 떠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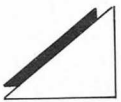
지난시기 미국의 콩 수입이 제한되었을때 국산대두를 사용하여 값이 비싼 두부가 출현되어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으나 아무리 노력하여도 국산대두만으로 두부를 만들면 항상 값비싼 두부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자급사료에 의한 생산비의 상승도 자명한 일이라고 한다.

돈육의 수입에 대하여도 그때문에 국내의 돈가양등을 억제하고 일반국민은 값싼 돈육이나 그 가공품을 손쉽게 얻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가 일본의 처지이기도 하며 수입육이 불가결한 이유는 그 많은 부분이 가공용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일본의 돈육소비의 구성비율로 부터도 생각할 수 있다. 해마다 가정소비가 감퇴하고 가공용으로 증대되는 경향으로 보아 금후에는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가공원료는 일본내의 수요에 따라 로-스햄이나 베이콘용의 부분육에 치우쳐 있고 이들의 부위가 항상 양적이나 질적으로 필요에



1모돈당의 육돈출하두수를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생산자재의 구입과 생산물판매에 관한 물량비용의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국제경쟁에 이겨나간다는 큰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국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따라 입수가 가능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이요청에는 수입돈육이 아니면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그리고 수입육은 장기계약에 의해 국내산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값싸게 규격에 맞는 양질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하면 그에 대응하는 도축장이나, 포장육공장에 종업원을 충족시키는 것이 곤란하다는 노동사정을 일본은 안고 있다.

마. 육종문제

양돈 선진국에 있어서는 보다 경제성이 높은 육돈생산을 위해서 육종개량에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 공공단체는 물론 민간종축회사에 의해 대규모 그리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수 많은 하이브리드돈이 여러나라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일본도 그런나라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각현 단위로 소규모 계통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몇개의 계통이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사업진행이 규모면이나 진행도가 활발치 못하다. 이와같은 현황은 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적 시간적으로 압도되어 버리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

일본이 전후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는 관주도형의 축산진흥정책은 소규모 양돈농가가 태반을 점하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30년전에 100만호가 있었던 양돈농가수가 1/25에까지 감소해 버린 현재 양돈경영과는 상당히 유리되어 버렸다고 한다.

구미 여러나라와 대만은 대규모 양돈장을 가진 시험연구기관이 있고 육종, 종돈생산, 비육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시행하고 현장에 직결된 기술, 경영지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각현이 1계통씩 개별로 세세하게 계통조성돈을 작출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미루어 보아 비경제적이고 하루속히 집단화하여 효율적인 육종을 행하여 대규모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재편성되어야 함이 바람직 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 일본의 축산진흥의 진의

이상에서 나름대로의 구미양돈의 여러나라의 실태와 일본을 비교하여 보았으나 이외에도 거론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고 생산자재의 개발이나 가격, 양돈농가의

조직 등 우리가 참고할 문제들이 많다.

일본의 양돈업계는 지금 큰 분기점에 걸려있다. 국제화가 국내전체의 슬로건으로 되어있는 작금 양돈업계도 이를 피해갈 방도가 없다. 돈육소비 침체의 경향에 대하여는 구미 여러나라의 1인당 소비량에 비하여 몇분의 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더 많은 소비확대를 도모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일본에서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억제하자고 하는 소리도 있으나 비만이 늘고 아이들의 성인병이 화제로 되는등 포식, 영양과잉이 문제로 되어 있는것이 일본의 현실이며 일본적 식생활을 재검토하

는 등 돈육만이 아니고 일본의 축산식품의 섭취는 과분하지 않게하는 알맞은 시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축산분야의 진상을 그 나름대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이상의 축산진흥이 정말로 국익과 연계되고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하여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냉철히 생각할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양돈도 성장도가 멈추어가고 있다. 종래 영세양돈가가 탈락하여간 분량을 대규모 경영이 그이상으로 보충, 두수증가를 계속하여 왔으나 향후 이와같은 일은 곤란하게 될 것이고 소비도 둔화된다고 일본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그것이 성숙산업의 숙명이다. 그렇다고 그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함부로 두수를 증식시키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양돈의 현실이다.

1모돈당의 육돈출하두수를 늘리는 것을 기본으로 생산자재의 구입과 생산물관매에 관한 물량비용의 절감에 철저를 기하고 국제경쟁에 이겨나간다는 큰목적을 생각하기 전에 국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역시 돼지가 한마리라도 남아 있을 수 없는 일과같은 일이 없기 때문이다. **●●●**